

‘식물성 고기’ 등 바이오혁신을 향한 박용호 교수의 집념

# 가축 줄기세포로 키운 배양육, 3D프린팅 생산

노아바이오텍-이원다이애그노믹스 온실가스·에너지 소비 줄여 친환경 3D 프린팅 활용 생산비용 낮출 계획

국내 처음으로 배양육 개발이 본격화된다. 배양육은 소와 돼지 등 가축의 근육 줄기세포를 추출해 외부에서 고기 조직으로 키워낸 인공 육류다. 환경오염이나 전염병을 일으키는 가축 사육 과정이 필요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배양육 개발에 도전하는 ㈜노아바이오텍은 25일 글로벌 유전체 빅데이터 기업, 이원다이애그노믹스와 배양육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원다이애그노믹스는 3년후 배양육 시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노아바이오텍에 20



노아바이오텍은 25일 글로벌 유전체 빅데이터 기업, 이원다이애그노믹스와 배양육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억원을 투자한다. 신상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대표는 “배양육이 미래의 주류 고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노아바이오텍에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아바이오텍은 서울대 수의대 박용

호 교수가 지난해 10월 창업한 기업으로 배양육 개발을 위해 서울대 수의대 장구 교수, 건국대 줄기세포재생공학과 배호재 교수, 인제대 바이오테크놀로지학부 박건택 교수와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노아바이오텍은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소 근육 유래 줄기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미국에선 ‘멤피스 미트’ 등의 스타트업이 배양육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국내에서 배양육 생산을 내세운 기업은 노아바이오텍이 처음이다.

배양육 연구는 전세계적인 미래산업 경쟁과제로서 소의 근육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생산되는 동물성 단백질로 기존 축산보다 토지 사용량은 99%, 온실가스 배출량은 96%, 에너지 소비량은 45%를 감소시킬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또 사육 환경이나 도축과 관련된 동물복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배양과정을 통해 생산돼 안전성을 확보하기 쉽고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도 없다.

회사측은 이 항생제 대체물질을 기업의 캐시카우로 삼을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제약바이오협-국내 10개 제약사  
세계시장 진출기지 ‘CIC’ 입성

보스턴 혁신 생태계서 협업 모색

국내 10개 제약바이오기업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 동지를 둔다. 글로벌 제약사의 연구개발센터,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하버드대학 등 주요대학, 벤처기업 등이 밀집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손꼽히는 보스턴 혁신 생태계에서 다양한 협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캄브리지 이노베이션센터(CIC) 입주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협회 임직원 및 CIC 입주사 관계자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CIC는 1999년 마련된 공유사무실로 보스턴, 마이애미 등 총 7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50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CIC에서는 입주기업 간 교류와 각지역 기업·연구소 등과 실시간 정보공유 및 파트너십이 이뤄지기 때문에 연구개발(R&D) 협업이나 기술이전, 합작투자법인(JV) 설립 등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 독일, 캐나다, 벨기에 등 각국 정부에서도 CIC에 자국기업 중심 거점을 두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CIC에는 유한양행과 GC녹십자 등 국내 기업이 입주했다.

/이세경 기자

아모레퍼시픽 스타트업과 R&D 이노베이션 챌린지

3개 뷰티테크 스타트업 우선협력기업

더 나은 제품 개발을 위해 아모레퍼시픽이 국내외 우수한 뷰티 테크 스타트업과 손을 잡는다.

아모레퍼시픽은 25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2개월간 진행한 ‘아모레퍼시픽 R&D 이노베이션 챌린지’를 통해 3개 스타트업을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을 위한 우선 협력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아모레퍼시픽 R&D 이노베이션 챌린지’는 한국무역협회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인 ‘이노브랜치’를 활용했다. 해당 플랫폼에는 50여 개의 국내외 주요 기업과 8500여 개의 국내외 스타

트업이 참여하고 있다. 혁신 기술을 지닌 스타트업과 협업을 원하는 기업에서 관심 분야를 공고하면, 스타트업 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및 온라인/오프라인 미팅을 거쳐 우선 협력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4월 공고를 통해 ▲소재(천연소재, 친환경 원료 등) ▲지속가능 패키징(생분해, Plastic-free 등) ▲바이오(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분석 등) ▲디지털(웨어러블, AR 등) ▲디바이스(마사지기, 패치 등) 5가지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모집했다. 해당 공고에는 국내외 스타트업 126개사가 지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지난 18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아모레퍼시픽 R&D 이노베이션 챌린지’ 1차 최종 미팅에 참가한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박영호 원장(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한국무역협회 이등기 혁신성장본부장(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아모레퍼시픽

동아ST, 지속가능경영 사회적가치위 출범

동아에스티는 24일 오후 서울 용두동 본사 7층 대강당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의사협의기구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출범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위원장 겸대식 회장과 부위원장, 7개 분과의 위원장 및 산하 사무국 위원들이 참석했다.

사회적가치위원회는 동아에스티가 매출, 이익 같은 경제적 가치와 환경보호, 사회적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공유가치(CSV)를 창출하는 활동을 통해 고객과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

에게 기여하고, 이것이 브랜드 및 기업 평판의 제고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다.

분과는 ▲공정거래자율준수협의회 ▲부패방지위원회 ▲CCM(소비자중심경영)위원회 ▲HSE(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보보호위원회 ▲조직문화위원회 ▲CSV위원회로 구성됐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분과의 위원장들은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수립과 의사결정, 추진 현황들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해 나갈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 AI 딥러닝 접목 신약개발 협약



보령제약-파미노젠 공동연구 협약 파미노젠 딥러닝 기반 플랫폼 활용 약물 최적화 연구, 효율적 진행 기대

보령제약은 인공지능(AI) 딥러닝 기반 신약개발 전문기업인 ‘파미노젠’과 신약개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보령제약은 파미노젠이 보유한 딥러닝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타겟 단백질에 대한 새로운 화학구조 발굴 및 약물 최적화 작업을 거쳐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약후보물질 발굴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줄여 약물 개발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세경 기자

특히 파미노젠이 보유하고 있는 약 200억건의 화합물 구조 및 약 16만건의 약물표적 단백질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약후보물질의 물성 및 독성예측을 통한 약물 최적화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미노젠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융합기술, 컴퓨터 모델링 기술을 바탕으로 신약후보물질을 발굴하는 신약개발 전문기업이다. 현재 삼성병원, 원자력병원 등 다수의 의료기관과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신약개발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다.

보령제약 신약연구소 명예혁소장은 “파미노젠의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통해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높여 빠른 시간내에 후보물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령제약은 앞으로도 신약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W생활건강  
‘마이코드’ 신제품 출시

JW생활건강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마이코드(myChord)’가 신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JW홀딩스의 자회사인 JW생활건강은 건기식 브랜드 ‘마이코드’의 신제품 3종(사진)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마이코드 제품 패키지에는 ‘나에게 딱 맞는 균형을 잡아준다’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고려해 ‘화음’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특히 제품 정보를 기본·균형·기능·편리 등 4개의 키워드로 구분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기식의 ‘기본’인 정직한 원료 사용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비롯해 ‘균형’ 잡힌 레시피, 건강 증진 ‘기능’, ‘편리’한 제형 등의 내용이 패키지에 담겨있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 3종은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장과 눈 건강을 비롯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다.

‘마이코드 신바이오티스 유산균 100억’은 세계 3대 유산균 메이커인 ‘듀폰 다니스코사’가 제조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했다. 1포당 100억 CFU의 균수를 보장한다. /이세경 기자

한세드림, 온라인몰 매출 2배 증가 ‘꽤거’

지난 3월 업계 최초 당일배송

국내 유아동복 기업 한세드림이 ‘총알배송’ 서비스가 시행 3개월만에 온라인몰 매출을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올리는 성과를 이뤘다고 25일 밝혔다.

‘총알배송’은 한세드림이 지난 3월 유아동복 업계 최초로 선보인 당일배송 서비스다.

자사 계열사 패션전문 쇼핑몰인 아이스타일24에서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주문하는 건에 대해 제공되며, 통상 이틀 이상 소요되던 의류 배송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큰 주목을 받았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총알배송 서비스의 시행과 함께 한세드림의 자사 온라인몰인 아이스타일 24에서의 매출은 전년대비 94% 이상 늘며 2배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밖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부모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아이 옷 고민을 해결해 준 일등공신으로 불리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한세드림 총알배송 서비스 사용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서비스를 시작한 3월에 비해 4월에는 243%, 5월에는 전월대비 38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